

# 제주남초·북초로 쏠림... 원도심학교 '희비'

### 원도심학교 8곳 중 5곳 올해 입학생 증가... 3곳 감소 글로벌역량학교·IB 학교 중심으로 증가세 두드러져 타 통학구역서 입학... "교과과정 선호도 반영된 듯"

서귀포시 서흥동에 자리한 서귀서초등학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면서 2018년 '원도심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는 올해 34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명 정도 증가한 수준이지만, 줄곧 감소하던 입학생 수가 '반짝 반등'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서귀서초의 입학생은 2023년 66명, 2024년 50명, 2025년 29명으로 이 기간에만 절반 넘게 줄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원도심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5개 유형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두고 있는데, 모든 원도심학교가 저마다 다룬다배움학교, 글로벌역량학교, IB학교, 발명학교, 문예체학교 등으로 운영 중이다.

원도심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 7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두 학교의 경우 학교 통학구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유입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주남초는 올해 입학생의 절반이 넘는 26명이, 제주북초는 입학생 3명 중 2명(44명)이 다른 통학구역에서 왔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 수 400명 이상인 동 지역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아동에 한해 통학구역과 관계 없이 원도심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말마다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아 보는데, 각 학교가 원도심 여건에 맞춰 짜임새 있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2개 학교(제주남초, 제주북초)에 입학생이 좀 더 몰리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 4·3평화재단 이사장 후보에 임문철 신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후보로 임문철(72·사진) 신부가 선정됐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임 신부를 이사장 후보자로 의결해 제주도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위원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 대표 등을 지냈다. 제주도는 임 신부가 이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지 파악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종민 현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10일을 기해 만료된다.



## 어업인수당 인상... "어가 1인당 50만원"

제주도, 9·31일 신청 접수  
제주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어가구는 구성원 각 1인당 연 45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과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 본격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 추진 연안에 자생 염생식물 식재



월척 향안 기다림 지난 7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에서 아직은 차가운 날씨 속에 대물을 기대하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가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뜻하며,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참여 기업은 ESG 경영 실적과 함께 탄소중립 기여 성과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공공 가치를 얻는다.

도는 지난해 염생식물 식재복원 가능지구 조사를 토대로 조상대·조간대·조하대에 걸쳐 제주연안 19개소를 복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계·오조·김녕·월정 등 조상대에는 황근과 솜비기를, 오조 등 조간대에는 함초를, 함덕·행원·시흥 등 조하대에는 잘피를 각각 심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무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과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작업 안전 컨설팅 농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오는 4월 23일까지 농작업 안전보건컨설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인파고정판    인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